



안현민



김성운



송성민



신민재



김주원

마지막 바퀴 4위→2위 집념의 빙속 정재원 월드컵 3차 은메달

빙속 장거리 간판 정재원(의정부시청·사진)이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원은 8일(한국 시간) 네덜란드 헤이렌베인 티알프에서 열린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3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7분25초568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1위는 7분24초963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네덜란드의 요릿 베르흐스마가 차지했다.



레이스 초중반엔 숨을 고르던 정재원은 마지막 바퀴를 남기고 4위로 올라섰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 베르흐스마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매스스타트 여자 경기에서는 박지우(강원도청)가 8분8초285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 통산 첫 번째 월드컵 메달을 목에 걸었다.

1위는 네덜란드의 마레이커 흐루네바우트(8분7초660), 2위는 미국의 미아 망가넬로(8분7초924)가 차지했다.

박지우는 레이스 초반 후미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한 바퀴를 남기고 5위로 순위를 끌어 올렸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전력 질주해 3위로 결승선을 끊었다.

“황금장갑 내 차지”... 오늘 웃을 ‘새 얼굴’

2025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는 ‘첫 수상자’가 여럿 등장할 전망이다.

투수와 포수, 지명 타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외야수(3명) 총 10개 부문 수상자 중 절반 이상이 새 얼굴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투수 부문 4관왕이자 정규시즌 최우수 선수(MVP) 코디 폰세(한화 이글스), 타격 부문 3관왕인 1루수 르윈 디아즈(삼성 라이온즈)의 수상은 확정적이다.

폰세는 KBO리그 첫 시즌을 보냈고, 디아즈는 2024년에는 시즌 중반에 삼성 유니폼을 입어 올해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후보에 올랐다.

국내 선수 중에서는 외야수 안현민(KT wiz), 김성운(삼성), 3루수 송성민(키움 히어로즈), 2루수 신민재(LG 트윈스), 유격수 김주원(NC 다이노스)이 첫 수상을 노

KBO 골든글러브 절반 ‘첫 수상’

투수 폰세·디아즈 수상 거의 확실

국내선 외야 김성운·3루수 송성민

2루수 신민재·유격수 김주원 유력

신인왕 안현민, 류현진·서건창 이어

9번째 황금장갑 동시 수상 노려

린다.

모두 사연 있는 선수들이다.

안현민은 202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4라운드 전체 38순위로 kt에 입단했다. 올해 재능을 꽃피웠다.

안현민은 2025시즌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34(2위), 22홈런(공동 10위), 80타점(공동 15위), 출루율 0.448(1위), 장타율 0.570(3위)을 올렸다.

공식 시상 부문은 아니지만, 안현민은 타자 부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 7.22로 타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4일 KBO 시상식에서 신인왕을 차지한 뒤 안현민은 “나도 군 생활을 하면서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극복했다. 전역 후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표가 올해 신인상을 받게 된 동력”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다.

안현민이 이번 없이 황금장갑을 끼면 1983년 박종훈(OB 베어스), 1985년 이순철(해태 타이거즈), 1990년 김동수(LG), 1992년 염종석(롯데 자이언츠), 1996년 박재홍(현대 유니콘스), 1997년 이병규(LG), 2006년 류현진(한화), 2012년 서건창(넥센 히어로즈)에 이어 역대 9번째로 같은 해에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동시에 수상한 선수가 된다.

KBO리그 최단신(163cm) 김성운은 올해 타율 0.331(3위), 151안타(9위), 출루율 0.419(2위)로 활약했다. WAR은 5.78로 타자 부문 5위였다. 동료들은 김성운의 허벅지 두께를 보며 훈련량을 짐작한다.

단신의 한계를 딛고 KBO리그에서도 손꼽는 외야수로 자리매김한 김성운은 첫 골든글러브 수상도 넘는다.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위해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에 나선 송성민은 올해 첫 골든글러브 수상을 예약했다. 송성민은 “나는 딱 두 시즌만 잘한 선수”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처음 잘한 시즌’인 지난해 송성민은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 OPS(출루율+장타율) 0.927로 활약했지만, 그해 정규시즌 MVP에 오른 김도영(KIA 타이거즈)에게 3루수 황금장갑을 내줬다. 올해 송성민은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OPS 0.917로 활약했다. 올해에는 송성민보다 뛰어난 성적을 거둔 3루수가 없다.

LG 2루수 신민재는 골든글러브 수상으로 ‘육성 선수 신화’를 완성하고자 한다. 인천고를 졸업한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지 못해 육성 선수로 두산에 입단한 신민재는 LG로 이적한 뒤로 대주자, 대수비로 뛰다가 2023년 후반기에 주전 2루수로 도약했다.

올해에는 정규시즌에서 타율 0.313으로 팀 내 1위(전체 9위)에 올랐고, 한화와의 한국시리즈(KS)에서도 타율 0.409(22타수 9안타), 3타점, 6득점으로 활약했다.

2021년에 입단한 김주원은 5년 차에 리그 최고 유격수로 우뚝 섰다. 김주원은 올해 144경기에 모두 출전해 타율 0.289(539타수 156안타), 15홈런, 66타점, 44도루 OPS 0.830을 올렸다. 유격수 중 OPS가 가장 높고, 수비 이닝(1166이닝)도 가장 많다. 올해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청용대전
2025.12.15(월) 19시 vs 삼성생명
8090 농구대잔치로 초대합니다

- 양 팀 선수단 클래식 유니폼 착용
- 특별 제작 응원도구 증정 (양팀 관중 전용)
- 치어리딩팀 합동 공연
- 양 팀 팬 대결 이벤트

KB스타즈 여자프로농구단

최초의 클래식 더비... KB vs 삼성생명, 이제는 ‘청용대전’

여자프로농구 청주 KB는 용인 삼성생명과의 대결에 ‘청용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여 클래식 더비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15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정규리그 경기로 시작되는 ‘청용대전’은 양 구단 연고지인 청주와 용인의 앞 글자를 결합해 만들어진 이름이다. KB와 삼성생명은 명문 구단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1980~1990년대 농구대잔치 분위기를 재현해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이번 더비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양 구단은 더비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엠블럼을 제작했고, 선수들은 엠블럼이 새겨진 클래식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이다. 입장권 예매는 9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에서 시작된다.

KB국민은행 강이슬, 삼성생명 이해란

Mhancer Plus[®] 관절영양제의 혁명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